

2024학년도 1학기 문헌연구보고서



조선왕조의 장기지속과 정체의 기원 : 안정성

이름	민경원
전공	행정학과
학번	20240279

1. 서론

본고는 조선 사회의 보편적인 안정성, 혹은 합리성이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안정적인 정치체제, 재분배경제, 광범위하게 퍼진 유교적 가치관 등 조선 사회의 안정성을 견인하던 특징들이 발전을 제약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안정성 자체가 혁신을 저해하는 속성인지, 그 기전(機轉)을 밝히려고 할 것이다.

본고는 우선 이러한 안정성과 합리성이 달성될 수 있었던 원인을 조선과 조선 이전으로부터 찾아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안정성의 역설을 도출해보려 한다. 또한 초보적이거나 유럽과의 개략적인 비교를 통해 그 변곡점을 조금 더 명확히 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시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들어가는 말

조선 왕조의 장기지속은 오래전부터 여러 연구자가 주목해 온 사실이다. 조선왕조의 장기 존속을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에 500년의 세월은 긴 시간이다. 조선은 먼 유럽의 왕조들에 비해서도, 그 통치 체제와 사상을 참고한 중국의 왕조들에 비해도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온 왕조였다. 이러한 장기지속성은 충분히 조선 왕조의 하나의 특징으로 일컬어질 법하다. 그렇기에, 이에 주목하여 연구한 이들은 꾸준히 있었다.

일찍이 전해중은 이를 중앙권력의 강력함에서 보았으며, 이를 지방 세력 성장의 미약함에서 보았다. 한편 Palais는 "귀족과 엘리트 간의 힘의 균형의 산물"로 보았다.¹ 김재호 역시 세력 균형에 주목하여 장기지속을 경제학적 기반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² 또한, 전해중 및 다른 연구자들은 동시에 중국의 통치자 지위 인정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³ 특히 비교적 최근엔 아시아의 부상이 세계적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유럽중심주의적인 장기고착론 시각에서 벗어난 캘리포니아 학파⁴의 시각이 주목받게 된 바가 있었다.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중국

¹ 이훈상, (1988). 『James B. Palais,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pp. 390. 『역사학보』 118.- 111-117.

² 김재호. (2011). 「조선왕조 장기지속의 경제적 기원」, 『경제학연구』, 59(4), 53-117.

³ 전해중. (1970). 「中國과 韓國의 王朝交替에 대하여」, 『백산학보』, (8), 29-53.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요인은 본고에서 제한한다.

⁴ 대표적으로 케네스 포메란츠는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을 이어가던 동서양이 여러 우연으로 인해 1750년을 분기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대분기 학설을 주장했다. 자세한 사항은 Morris, Ian. (2013).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 글항아리..

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성장에 관한 재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피상적으로 보이며, 중국에 관한 연구에 비해 조선에 관한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조선이 중국의 주변국으로만 여겨지는 것 역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본고가 조선 왕조의 정체, 혹은 비교적 느린 성장의 원인으로 지목하려는 안정성은 이전에도 동아시아 왕조의 문제점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언급된 적은 있는 문제점이다. 특히, 다분히 정치적인 색채가 드러나나,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남긴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양식 주장⁵과, 베버의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유럽중심주의적인 시각에 해당하며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과도하게 폄하하는 감이 있다.⁶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둘 것이다.

조선은 비교사적으로 특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던 조선은 중국의 체제를 상당수 참고했으나, 거대한 중국이 지녔던 자기완결성은 지니지 못 했던 국가였다. 하지만 크기가 작기에, 그 사상적 영향력은 쉽게 퍼졌고 결국 중국의 국가들보다 더 유교적인 면모를 보이며 더 길게 존속한 국가였다. 또한, 중국은 유지하지 못했던 조용조 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한 국가이기도 했으며, 어쩌면 중국이 실패했던 상업 억제제를 의도적으로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면모를 보였으나 이념과 현실의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던 국가였던⁷ 조선을 연구하는 것은 유교가 강력하게 스며든 사회의 특성을 제공하는 데에 중국과는 다른 관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하에서는 우선 조선왕조의 안정성과 그 원인을 과거로부터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2. 본론

2.1. 조선왕조의 내부적 안정성과 그 원인

조선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군주 주권국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존속하여 국가개념의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⁸ 동아시아는 정치가 개인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유교의 교의에 따라, 협의를 중시하는 정치체제를 유지해왔다. 조선 또한 정도전에 의해, 안정적인 군신공치제가 큰 정치적 틀로서

⁵ 양해림. (2018). 「동양과 서양의 생산양식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 졌나?-마르크스의「아시아적 생산양식」이론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0(0), 379-407.

⁶ 최재현. (1987). 「마르크스와 베버의 아시아 사회관」, 『동아연구』, 11(0), 225. “근대유럽문명의 찬연한 성과와 비유럽문명의 상대적인 낙후를 애써서 대비시키고 나머지 후자가 수천년 동안 전개되어 나오는 가운데 보여준 발전 또는 발전의 잠재력은 대체로 무시하는 경향이다.”

⁷ 과도하게 작은 재정은 공식적인 수취와 비공식적인 수취의 구분이 애매하게 했다. 즉슨, 국가는 필요할 때마다 자의적으로 거두었고, 관리의 수탈은 관례화되었다. 특히 군대의 경우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부업이 강제되었다.

⁸ 이헌창. (2017). 「조선왕조의 정치체제: 절대군주제」, 『經濟史學』 41.3, 242.

성립되었다고 여겨진다.⁹ 이는 이론보다 상황 및 관습에 의존했고 불교의 영향력이 남아있던 고려보다 안정적인 체제였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합리적이고 전문화되고 급료를 받는 관료제를 확립한 국가였던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에, 가능한 면도 있었지만, 한반도를 주도하는 세력의 노력 역시 주요했다. 조선이 이러한 중앙집권체제를 형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포섭이다. 즉, 중앙권력에의 합류 가능성을 통한 유인이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 즉 필요성의 형성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견제이며, 이는 지방세력에 대한 약체화 시도를 의미한다.

2.1.1 조선은 어떻게 강력한 중앙집권을 달성했는가 - 1. 포섭

조선이 전기부터 다지기 시작하여, 중 후기 즈음에 달성한 중앙권력의 공고화와 사상 통제는 인상적이다. 특히 여말선초의 상황을 보면 그 달성의 의의를 짐작하기 쉽다. 원의 지배가 사라진 후, 고려 말의 사회는 혼란했다. 고려의 마지막 개혁 시도는 좌절되었으며, 카다안 반군 잔당, 홍건적, 왜구 등의 외침은 의미 그대로 전 국토를 유린하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지방세력은 중앙권력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영지와 세력을 일궈야 했으며, 이는 군벌 세력이 되었다. 이성계 또한 이런 군벌 세력들의 추대로 오른 이였으며, 당시의 정치적 안정은 군벌세력들에 의해 쉽게 위협되곤 했다. 대표적으로 왕자의 난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이방원과 그를 따르던 군벌들이 주도한 것이었기에, 당장의 정치적 안정성은 달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조선 중기에 달성되는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요원했다. 당시 조선의 지방세력은 흔히 생각되는 선비들보다는 유럽의 봉건영주들, 혹은 일본의 무사 영주들에 가까웠다. 이러한 내부 세력은 언제든지 다시 조선을 뒤집으려 할 가능성이 있었다.

조선이 이러한 지방세력의 포섭을 할 수 있었던 경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 때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지방권력을 중앙으로 포섭하려 했던 시도는 고려 때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고려는 통일신라의 신분제 사회를 없애고 형성된 사회였다. 통일신라는 골품제를 기반으로 폐쇄적인 신분제를 유지하던 국가였기에, 지방 권력은 중앙권력에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그렇기에 지방세력은 자연스럽게 중앙에 합류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했다. 그러했던 통일신라 이후에 생겨난 고려의 지배층은 통일신라의 체제의 단점을 알았다. 그리고 불안정한 건국초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세력의 포섭이 필요했다. 고려는 여러 유효책을 내밀며 지방세력의 포섭을 시도했다. 흔히 언급되는 왕건과 29명의 부인이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었고, 이외에도 역과 같은 노동 의무의 면제와 같은, 실체가 있는 특권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고려사 내내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고려 전기의 지방세력은 여전히 자신의 영지를 경영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시도는 빛을 발했다. 특히 고려 성종 시기에 세운 향교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방세력의 자제들을 수도로 불러서 공부시켜도 되지 않으니 지방에 세워주었던 것이 서서히 의도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유교 사상은

⁹ 김영수. (2008). 「동아시아 군신공치제의 이론과 현실」,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7(2), 29-58.

이를 통해 고려 사회의 기저에 형성되었고, 사상 지배의 기초를 닦았다.¹⁰

2.1.2 조선은 어떻게 강력한 중앙집권을 달성했는가 - 2. 필요성 형성

그러나 단지 이것 만으로는 조선이 중앙집권을 달성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조선의 지배층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배층의 필요성을 지방에서 인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지배층이 중앙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위 역시 고려로부터 이어져 온다. 고려는 비교적 합리적인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낸 국가였다. 특히 그 중 하나는 합리적인 사법 행정으로, 이는 고려의 중앙권력이 점진적으로 가꾼 제도였다. 이는 분쟁이 발생할 시 직접적인 해결을 선호하던 지방의 사족들이 과격한 해결책을 택하기보다는 소장을 작성하고 관아에 방문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공정한 법정을 통해 왕권을 강화한 영국과 공통적인 모습이다.¹¹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향촌 사회의 암묵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던 향리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확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였다. 국가의 행정 제도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인구가 늘며 경제가 발달하며 토지 소유를 명확하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은 이러한 행정 시스템으로 또다른 혜택을 지방에 제공한다. 이는 재분배경제이다. 조선왕조의 재지세력들은 지방재정을 원천으로 하는 선물경제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으며 수요를 충족했다. 즉슨,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거두어진 지방재정의 일정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하였고, 또한 이러한 선물경제로 생겨나는 네트워크는 그들이 재산권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쓰였다는 주장 또한 있다.¹² 이에 더해 환곡으로 대표되는 곡물 축적 및 재분배 시스템은 농업 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흉년 문제 또한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 시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있었다.¹³ 이러한 합리적인 행정력은 지방세력에, 더불어서 일반 백성에게까지 중앙권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¹⁰ 이러한 유교 사상의 보급은 계층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보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송웅섭. (2017). 「고려 말~조선 전기 '정치 세력의 이해' 다시 보기」, 『역사비평』, 12-39.

¹¹ 이순갑, 김배원. (2008). 「중세 런던 법정의 형성과 운영」, 『법학연구』, 331,349-351. 해당 글은 왕권을 정비과정에 맞추어 형성이 되는 법정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런던이 잉글랜드의 가장 중심부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고, 유럽 중세 도시에 대비에 잉글랜드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도시로 성장한 것에 대해 이를 꼽는다.

¹² 김재호. (2011). 「조선왕조 장기지속의 경제적 기원」, 『경제학연구』, 59(4), 53-117.

¹³ 조선의 1인당 곡물저장은 중국의 5배에 달했다. 이는 중국의 인구가 많아서도 있으나, 환곡 시스템의 재분배 능력 또한 이에 관여했을 것이다.

2.1.3 조선은 어떻게 강력한 중앙집권을 달성했는가 - 3. 견제

마지막으로는 견제이다. 이렇게 포섭된 계층에 대한 견제를 조선은 계속했었다. 조선의 신진사대부는 통념과는 다르게 고려 지배계층을 계승한 집단이라는 주장이 있다. 특히 던컨의 연구에서 그는 고려 후기 주요 가문의 삼분지 이가 조선 초기 주요 가문과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두 집단의 동질성이 매우 높음을 주장했다.¹⁴ 동 글에서 그가 근거로 드는 그 이유 중 하나인, 과거 출신 고위 관원들의 비율이 높지 않음과 과거에 합격한 인사 중 상당수가 음서를 통해 관직 생활을 하다가 과거에 급제한 점 등을 보면, 신진사대부가 꽤 폐쇄적인 집단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¹⁵ 고려 말 온건개혁파들이 존재했던 것이나, 조선 초에 고려의 제도들을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인 점으로 보아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 여겨진다.

이 지점에서 조선이 고려와는 다르게 중앙집권을 달성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원인을 알 수 있다. 기득권이었던 조선의 건국집단은 전기엔 지방세력을 포섭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단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재지사족을 종래에는 피지배계층으로 전략시킬 대상으로 보았다. 때마침 이는 유교적 이상에도 맞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었다. 이는 이후 향리의 수조권 박탈로 대표되는 경제적 안정성 혜택의 회수와, 노비에 대한 역 부과 등으로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서서히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상술했던 선물경제가 어느새 그들의 주 경제적 원천이 되게 했을 때, 그들은 서서히 중앙권력에 순응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 완전히 동화되어 수령을 보좌하는 하급관리로 전략한다.

2.2. 안정성의 역설 : 조선과 유럽의 비교를 중심으로

결론적으로 지방세력의 자제들은 향교에서 유학을 배우기 시작했고, 공교육을 받으며 개경에 대한 선망을 가지게 된다.¹⁶ 또한, 지배층이 유학을 향유하게 되니, 유학의 관념이 재지사회에 퍼져간다. 그리고 그들은 중앙권력의 필요성을 오랜 기간에 걸쳐 인식하게 되며, 감히 중앙에 대적하기보다는 그들 자체가 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특히 유학은 마침 이러한 경향을 가속하는 데에 적합한 사상이었고, 그 특성 또한 조선 건국과 함께 강화되며 중기 이후에는 불교와 같은 다른 사상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거의 유일한 사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전히 사족에 이르기까지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면모가 있던 조선은, 중기에 이르러서는 유학적으로 세계관이 상당히 일신된다. 심지어, 유학적인 가치관의 전파는 경로의존성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켜, 18세기 경향 분기로 폐쇄적인 신분질서가 이루어졌음에도, 지방민들이 지방세력을 일구려고 하기보다는 여전

¹⁴ 송웅섭. (2017). 「고려 말~조선 전기 '정치 세력의 이해' 다시 보기」, 『역사비평』, 12-39.

¹⁵ 이러한 견해에 반박하는 입장 또한 존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익주, (1992), 「고려후기 사대부와 권문세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역사와 현실』, -8, 312-326. 《고려후기 세족층연구》(김광철,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1).

¹⁶ 이익주. (2015). 「고려 전기 '상경(上京)'을 통해 본 개경의 위상」, 『서울학연구』, 60, 1-28

히 중앙권력에 합류하기 위해 과거 시험을 공부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었다.¹⁷ 약체화된 지방세력은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중앙권력을 뒤집지 못했다.

이러한 제도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방식으로,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든 조선은 17세기에 이르러 강력한 중앙집권을 완성했다. 그들은 사상을 지배했다. 공명첩과 같은 조선의 세금 확충 수단은 이러한 관념의 확산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유럽에서는 세금 징수인과 같은 실제 관직을 주고 판 것에 반해, 조선은 명예직을 사고파는 것만으로 유의미한 재정이 모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안정성의 역설이 발생한다. 어느 시점부터 조선은 자체적인 변화를 거의 멈추었다시피 하게 되었다. 지방권력이 중앙에 합류하려고 하면서, 그리고 재분배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경제발전이 늦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유럽과의 발달 과정을 비교하면 이는 확인할 수 있다.

개략적으로, 유럽은 동북아와 비교하면 역동성이 팽배한 세계였다. 서로마의 멸망 이후 10세기에 그리스도교를 통한 통합과 봉건제를 통한 질서가 싹트기 시작했으나, 11세기의 십자군 전쟁으로 그리스도교 세계관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봉건제 또한 중앙권력과 지방세력의 다툼으로 불안정했다. 이 시기 유럽의 군주, 영주들은 끊임없는 대내외 경쟁에 시달려야 했다.¹⁸ 역설적으로 그런 곳에서 자치도시와 같은 것이 생기며 상업이 발달한다. 정확히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성장하던 상업이 유럽에서는 억제할 마땅한 힘이 부재하였다. 오히려 매관매직이 정례화된 유럽에서는 중앙권력에 들어가기 힘들었기에 자신의 영지를 가꾸는 데에 열심이었다. 지방세력은 상업을 장려했다. 또한, 해상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되었다.

그렇게 지방세력이 강대하니 세금이 잘 거두어지지 않았다. 세금을 걷는 것에 동의를 받기 위해 의회가 생겨났다. 그러나 대륙이 자주 불안정하니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했다. 그렇기에, 세금을 최대한 쥐어짜서 걷기 위하여 행정력이 발달했으며, 이미 발달하여 있던 상업은, 그에 더해 국가가 돈을 국민에게서 빌리는 것까지, 즉슨 민간 금융의 발달까지 가능하게 하였다.¹⁹ 이후엔 교황권의 하락, 직접세 제도의 강화 등등으로 서서히 불안정했던 내부

¹⁷ 박진철. (2013). 「19世紀 朝鮮 在地士族의 位相 變化와 權益 守護 方式」, 『한국민족문화』,(49), 229-269.

¹⁸ 잉글랜드 왕과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사사건건 교회세력과 충돌을 빚었고, 프랑스의 카페왕조는 '교회의 보호자'를 자처했다. 즉, 교회권력에 기댄 왕권이었던 것이다.

¹⁹ 조선의 경우 통일신라 말, 고려 말에 공통적으로 지방세력이 상업 중심적으로 힘을 키우는 것을 알았기에 상업을 억제하였다. 유학을 꼭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명말의 관료들은 상업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력의 발달이 세수 확충을 위해 일어나는 것은 조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각 군현에서 자체적으로 걷던 포세를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종의 관세로, 균역법 이후 재정난에 허덕이던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생겨난 것이었다.

사정이 여러 요인으로 안정화되며, 중앙집권이 강한 절대군주제가 유럽에도 도래하긴 했으나, 유럽의 역사와 역동성은 이를 오히려 안심하고 외부무력투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잘 다져진 행정력을 기반으로 과한 착취로 이어져 혁명이 벌어지게 된다.

반면 조선은 중앙집권은 달성하였으나, 그 발전상이 어느 지점 이상으로는 넘어가지 못하였다. 역설적이게도, 본고는 그 원인을 조선이, 전근대 치고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달성했기 때문으로 짚는다. 국가의 지속적인 활동은 결국 국가의 가독성, 즉 행정력이 파악하고 통제하는 정보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조선과 유럽의 직접세 전통을 비교해보면 조선의 가독성을 유추할 수 있다.²¹ 그러나 조선은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가독성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었기 때문이다. 위의 방법들에, 몇몇 외부 요인까지 더하여 안정적인 국가를 달성한 조선은, 가독성을 더 늘려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정확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았으나, 작은 정부와 적은 세수로 말미암은 고질적인 재정난에 더해, 안 그래도 요역으로 힘든 백성이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²² 또한, 강력한 중앙집권은 상업 또한 지속적으로 견제했다. 통일신라 말의 장보고와, 고려 말의 상업 발달은 지방세력의 주 수입원으로 작용했다. 고로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으로 여겨졌다. 동 맥락에서 해상 진출 또한 필요 없었다. 오히려 불안정만 가져올 뿐이었다. 그렇기에 억제하였다. 그리고 전근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강력한 체제를 갖춘 조선은 유럽과 다르게 그것에 성공했다. 그렇게 중앙 집권은 달성하였으니, 지방이 주도하는 건설은 줄어도 국가 주도의 대규모 건설 역량은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니 실행되지 못했다. 규모의 경제가 없었던 것이다. 그에 더해 국가적인 재분배경제는 농민을 가난하게 머물게 하면서도 굶주리게 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유교의 가족윤리와 군신윤리는 실제적인 힘의 부족에도 국가 시스템이 굴러가게 하였다. 그리고 이는 군대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하였고, 군사력 또한 약화되게 한다. 지속적인 농업 발전의 경우 잉여생산물을 만들며 지속적인 상업의 발달을 일으키긴 하였으나, 역설적으로 상업 발달이 미진했기에, 농업 발전 또한 한계를 맞이한다. 비료와 같은 것을 널리 퍼뜨릴 상업적 기반이 부족했던 것이다.

조선은 합리적인 국가였다. 그러나 과하게 합리적이었고 안정을 추구하였다. 과하게 합리적이었던 결과, 그들은 인간의 주요 동력을 간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세 프랑스에서 통일된 단위제가 등장한 것은 시장 교환의 성장과, 봉건 영지 소유자들의 수익 극대화 욕망이었다. 유럽에서 법

²⁰ 제임스 C. 스콧. (2010). 『국가처럼 보기 -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에코리브르. 20-138

²¹ 조선의 토지세 비중은 90%에 달했다. 유럽은 근세 절대왕제가 성립한 이후 직접세를 늘렸다. 간접세는 상업적 전통이 필요하긴 하지만, 직접세와 다르게 토지 소유와 수입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다.

²² 혹은 임시적인 조치만이 취해졌다. 공물을 그저 가져가면 태업을 하니, 서로 사고 팔라는 취지에서 그 장소에서 나지 않는 것, 즉 불산공물을 배정하는 식이었다. 이러한 조용조체제 역시 조선의 정체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적 개념이 발달한 것은 관행에 따른 토지 소유권이 난잡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세금을 걷는 이들 시점에서 복잡한 토지 소유는 침투하기 힘든 벽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또한, 소득세의 기원은 프랑스 혁명 전쟁 및 나폴레옹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수익을 쥐어짜고, 그를 위해 가독성을 올리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수많은 근대적인 요소들이 생겨났고, 유럽의 기반을 형성했다.

3. 결론

조선은 포섭, 필요성 형성, 그리고 견제의 방식으로 안정적인 중앙집권적 관료제 국가를 일구어냈다. 이러한 안정성은 유학, 정확히는 주희 성리학의 방식으로 더더욱 공고화되었으며, 종교를 탄압하고 종교의 역할을 대체하기까지 하는 유학의 특성은 다른 모든 사상을 몰아내는 것에도 기여하였다. 관료제, 재분배경제 등등의 요인들은 안정성을 견인했으나, 중국에는 경로의존성을 전국에 각인시켜 다른 시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조선의 발전 정체, 혹은 상당히 느린 성장 속도의 원인은 시장 경제와 다양한 사상이 발전하기 이전에 중앙집권적인 안정성을 이상으로 추구하는 유교적 관료제가 너무 빠르게 정착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조선은 전근대치고는 강력한 중앙권력을 이룬 시기에 달성했다. 한편 유럽에서는 조선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행정력이 발달하였고, 이는 유럽에 이후 수 세기간의 불안정을 주었음에도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켜 결국엔 유럽의 행정력이 가독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하였다. 반면, 조선이 지방세력의 약체화를 시도했을 때, 조선은 이를 실현시킬 힘이 있었고, 이는 그대로 실현되었다. 결국, 17세기에 이르러서 지방세력은 중앙조정을 더는 위협할 원동력 그 자체를 잃게 되며, 중앙조정에서 견제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²³ 이는 조선이 긴 기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나, 정체의 원인이 되었다. 차이점은 조선이 가졌던, 한계는 있으나 시기상으로는 이례적인 행정력이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유학과 그리스도교의 차이, 지정학적 요인의 차이와 같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은 본고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 본고는 조선의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²⁴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과 유교적 가치관이 조선 사회의 장기 지속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본고의 결론이 조선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를 바란다. 하지만 본고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여전히 조선 사회의 안정성과 발전 정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안정성이 발전 정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또한, 유럽 사회와의 비교 분석에서도 단순화의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럽 사회 역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전해왔기

²³ 이는 계획에 저항할 능력을 상실한 기진맥진한 시민사회를 형성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²⁴ 사실은 새로운 시각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비슷한 논의가 유럽중심주의적이었다는 것에서, 해당 글은 좀 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단순 비교를 통해 조선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례적, 혹은 수치적으로 논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 부족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조선 사회의 안정성과 발전 정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 사회와의 비교 분석에서도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4. 참고 문헌

1. 김영수. (2008). 「동아시아 군신공치제의 이론과 현실」,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7(2), 29-58.
2. 김재호. (2011). 「조선왕조 장기지속의 경제적 기원」, 『경제학연구』, 59(4), 53-117.
3. 박진철. (2013). 「19世紀 朝鮮 在地士族의 位相 變化와 權益 守護 方式」, 『한국민족문화』, (49), 229-269.
4. 송웅섭. (2017). 「고려 말~조선 전기 '정치 세력의 이해' 다시 보기」, 『역사비평』, 12-39.
5. 양해림. (2018). 「동양과 서양의 생산양식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 졌나?-마르크스의「아시아적 생산양식」이론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0(0), 379-407.
6. 이순갑, 김배원. (2008). 「중세 런던 법정의 형성과 운영」, 『법학연구』, 331,349-351.
7. 이훈상, (1988). 『James B. Palais,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pp. 390." 『역사학보』 118.- 111-117
8. 이헌창. (2010).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6-29
9. 이헌창. (2011). 『한국경제통사』, 제4판. 도서출판 해남. 32-54
10. 이헌창. (2017). 「조선왕조의 정치체제: 절대군주제」, 『經濟史學』 41.3, 242.
11. 이익주, (1992), 「고려 후기 사대부와 권문세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역사와 현실』, 8, 312-326. 《고려 후기 세족층연구》(김광철,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1).
12. 이익주. (2015). 「고려 전기 '상경(上京)'을 통해 본 개경의 위상」, 『서울학연구』, 60, 1-28.
13. 제임스 C. 스콧. (2010). 『국가처럼 보기 -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에코리브르. 20-138
14. 전해종. (1970). 「中國과 韓國의 王朝交替에 대하여」, 『백산학보』, (8), 29-53.
15. 최재현. (1987). 「마르크스와 베버의 아시아 사회관」, 『동아연구』, 11(0), 225.
16. 티모시 브룩. (2005). 『패락의 혼돈 - 중국 명대의 상업과 문화』, 이산. 32-106
17. Morris, Ian. (2013).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 글항아리.